



사회과학연구소, 2023년 콜로키움 시리즈 개최

사회과학 분과학문 간 학술연구 교류 증진을 위해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기획한 2023년 상반기 콜로키움 시리즈가 5월 한 달 간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제1회 콜로키움은 지난 5월 3일 사회학과 박주연 교수가 〈Studying Families and Motherhood through the Lens of Intersectionality〉를 주제로 발표했다. 다양한 경제적, 법적 지위를 가진 조선족 여성들의 연대형성 과정에 대한 분석과 한국의 엘리트 초국적 가족들의 자녀양육 및 가족관계에 대한 질적 연구를 소개하고, 토론은 사회복지학과 남보영 교수가 맡았다.

제2회 콜로키움은 5월 17일 성윤희 교수의 발표로 진행됐다. 콜로키움 주제는 〈마이크로 vs 매크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의 공신력 구성 요소와 인플루언서 위기 유형이 팔로워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소셜미디어 리스크 발생 시 팔로워 규모의 차이에 따라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의 공신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발현되는 데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학과 최성수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제3회 콜로키움은 5월 31일 문화인류학과 최명애 교수가 〈농부와 두루미: 인간 너머의 인류학을 위한 탐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철원 비무장지대(DMZ)의 두루미 서식과 관련하여 민간인출입통제구역에서 생활하는 농부들의 두루미에 대한 인식이 그들이 처한 환경적 변화와 조응하여 박해에서 환대, 그리고 협력적 공존관계로 변화하는 과정을 다중민족지(multispecies ethnography)적 관점에서 조망했다. 토론은 사회과학연구소 정현주 소장이 맡았다.

사회과학연구소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3년 제1회 콜로키움

**Studying Families and Motherhood
through the Lens of Intersectionality**

발표자: 박주연 교수(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토론자: 남보영 교수(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일 시: 2023년 5월 3일 수요일
오후 12시 ~ 오후 2시

장 소: 연세대학교 연희관 401호

사회과학연구소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3년 제2회 콜로키움

**마이크로 vs. 매크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의 공신력 구성 요소와
인플루언서 위기 유형이 팔로워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성윤희 교수(사회과학대학 언론홍보영상학부)
토론자: 최성수 교수(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일 시: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오후 3시 ~ 오후 5시

장 소: 연세대학교 연희관 201호

사회과학연구소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3년 제3회 콜로키움

**농부와 두루미
: 인간 너머의 인류학을 위한 탐색
(Farmers and Cranes: Toward Multispecies Anthropology)**

발표자: 최명애 교수(사회과학대학 문화인류학과)
토론자: 정현주 교수(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일 시: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오후 12시 ~ 오후 2시

장 소: 연세대학교 연희관 401호

DB사업단, 〈세대주의 담론과 한국사회 계층구조의 세대현실〉 콜로키움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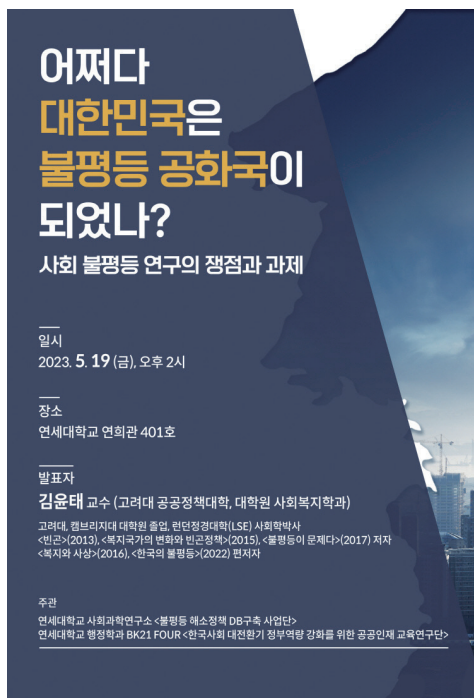


지난 4월 14일 불평등해소정책 DB구축사업단은 행정학과 BK교육연구단과 공동으로 〈세대주의 담론과 한국사회 계층구조의 세대현실〉을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최영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신진욱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신진욱 교수는 미디어에서 제기된 세대갈등 담론을 시기별로 분석하여 어떤 키워드가 세대갈등 담론으로 등장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고용과 소득, 교육, 복지 등에서 세대 간 차이와 세대 내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그리고 각 세대의 역사적 위치와 생애주기에서의 경험, 사회변동이 각 세대에 차별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해하고, 세대 내 격차와 세대 간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당초 예정된 시간을 넘길 정도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진 이번 콜로키움은 세대담론이 한국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중요한 주제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DB사업단, 〈어쩌다 대한민국은 불평등 공화국이 되었나〉 콜로키움 개최



지난 5월 19일 불평등해소정책 DB구축사업단은 행정학과 BK교육연구단과 공동으로 〈어쩌다 대한민국은 불평등 공화국이 되었나?: 사회 불평등 연구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김윤태 교수가 발표하고,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최영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콜로키움에서는 불평등은 자산, 교육, 지역, 문화 등 다차원적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1990년대 초 이후 소득 불평등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평등은 기술 발전, 인구구조 변화, 노동 유연화, 조세정책과 사회복지정책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제 간 연구와 사회정책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무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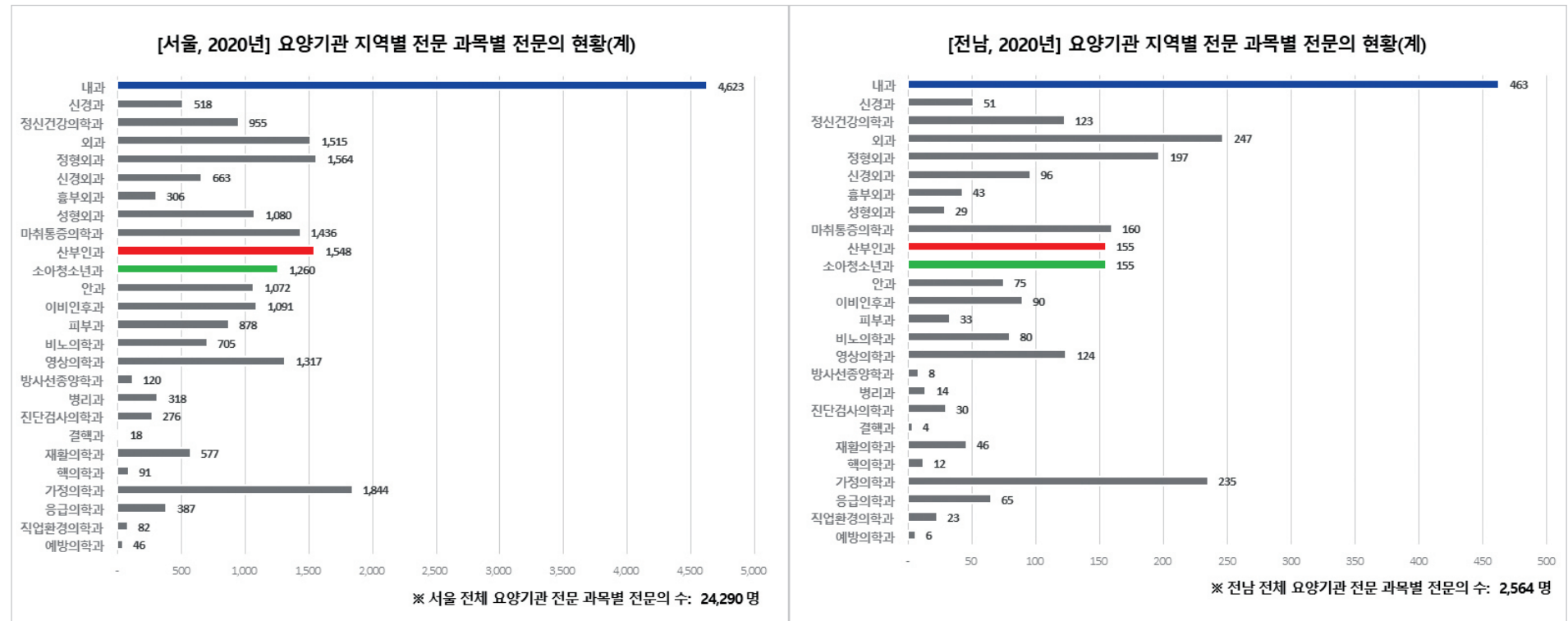
이번 콜로키움에는 행정학, 경제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패널들이 참여하여 한국사회의 불평등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가 됐다.

건강보험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소개: 서울 · 전남의 비교

불평등해소정책 DB구축사업단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17개 광역지자체별 기초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2020년 서울과 전라남도의 건강보험 데이터 일부를 소개한다. 전남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3.1%로 전국에서 고령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지역별 전문 과목별 전문의 현황과 지역별 입원실(병상) 현황을 분석했다.

1. 요양기관 지역별 전문 과목별 전문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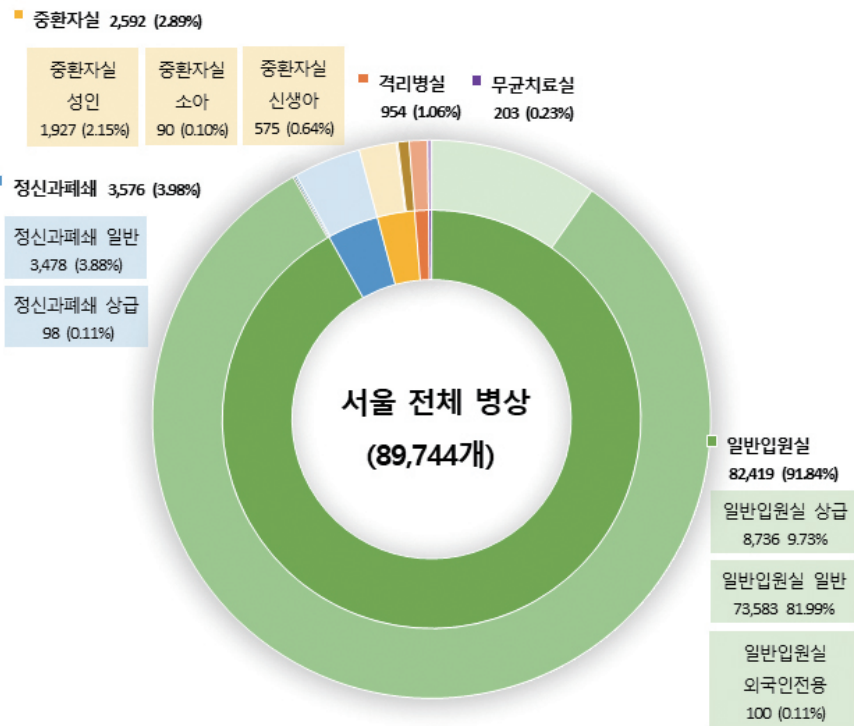
인구 10만 명 대비 전문의 현황을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비교했다. 내과 전문의 수는 모든 지역에서 가장 많은 반면,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서울과 지역 간 격차가 커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인구 10만 명당 내과 전문의 49.1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3.3명, 산부인과 전문의 16.4명이고, 전남은 각각 26.1명, 8.7명, 8.7명이었다. 최근 지방의료원이 소아과 · 산부인과 전문의 구인난을 겪는 등 관련 의료진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 전남의 경우 내과 전문의도 서울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 요양기관 지역별 입원실(병상) 현황

인구 10만 명 대비 병상 현황을 일반입원실(상급 입원실 포함), 외국인 전용 일반입원실, 소아·신생아 중환자실의 병상 수를 기준으로 비교했다. 서울의 경우 일반입원실 병상 수는 968.6개, 외국인 전용 병상 수는 782.9개,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수는 7개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각각 2,071.2개, 0개, 1.3개로, 예상과 달리 서울은 일반입원실 병상 수가 전남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반면 전남은 외국인 전용 병상이 전무하며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수도 10만 명당 1개 수준이었다.

[서울, 2020년] 요양기관 지역별 입원실 현황_병상



[전남, 2020년] 요양기관 지역별 입원실 현황_병상

